

다산포럼

삼일 정신, 100년의 꿈



김태희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전 다산연구소 소장

3월 1일 해 질 녘, 창밖의 태극기를 내리면서 생각했다. 하루론 부족하지 않나. 삼일 운동 100주년인데, 올해 1년 정도는 내내 계양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겠지만. 최근 발간된 두 권의 책이 우선 주목된다. 역사학자 박찬승 교수의 '1919'와 헌법학자 한인섭 교수의 '100년의 헌법'이 그것이다. 1919년 3월의 만세 운동은 몇몇 영웅의 작품이 아니었다. 상하이·도쿄 등 해외와 국내에서 긴박한 준비 과정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헌신이 있었다. 독립 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직원 인종익은 나중에 체포되어 경찰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전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그저 좋은 때가 왔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시도를 한 것뿐이다. 처음부터 성공을 기대하고 벌인 일도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좌절하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100명을 죽이면 또 다른 100명이 나올 것이다. 당선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한번 터진 불길은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이다."('1919'에서 재인용)

나라를 되찾고자 한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후에 주창된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었지만, 쉽사리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무언가 독립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삼일 만세 시위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 보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1948년의 제헌 헌법 전문의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란 표현이 이를 확인해 준다. 1919년에 꾸었던 꿈은 이후 독립 정신과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어 작동해 왔다. 그 꿈은 '독립 선언서' 이외에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해 4월 10일 상하

이에서 임시 의정원을 열어, 4월 11일 새벽에 '대한민국' 국호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 10개 조항을 선포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지금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규정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이고, 제10조는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다. 10여 년 전 의회 설립 좌절을 딛고 섰다. 또한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한 것'으로, 신분제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그밖에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교육·납세·병역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3·1운동이나, 3·1혁명이나. 어떻게 부르든 그 혁명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시대가 혁명의 시대였고, 생각이 혁명적이었다. 19세기 '시대3부작'을 쓴 에릭 홉스봄은 제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의 약 15년 동안이 서구 나라 들엔 '아름다운 시대'였지만, 자국의 더 넓은 다른 지역에선 '혁명의 시대'였다고 파악했다. 오래된 제국이었던 중국,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제1 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내에

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와 합스부르크 왕가가 무너졌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18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바이마르 제정의 시대에서 공화정의 시대로 바뀌고 있었다. 이를 대한민국의 선각자들은 주목했다.

볼과 10년 전에는 왕국의 백성이요 제국의 신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헌군주제나 귀족 공화제를 말하지 않고, 민주 공화제를 말했다. 왕국이나 제국을 말하지 않고, 민국을 말했다.

독립 선언서에서,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변신에 성공한 일본의 행태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라 규정했다. 조선 독립은 조선인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요, 동양 평화를 이루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삼일 운동은 평화 시위를 원칙으로 하여, 그 방식 또한 혁명적이었다. 1919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그 전과 다른 꿈을 꾸었다. 민주 공화국의 꿈, 자주 독립의 꿈, 인류 평등과 평화의 꿈 등. 1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성취도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면도 없지 않다. 함께 이루어 왔고 함께 이루어야 할 꿈, 그 꿈을 다시 상기해 본다.

기고

소유에서 공유로



김은희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공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자신의 유휴 자산을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 보다 싸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기업에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비즈니스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유휴 자원, 즉 유휴 상태에 있는 자동차나 주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도심 내 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

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간을 운전자의 목적지와 매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결혼식장, 영화관, 야구장, 사원·잘·교회, 주차장 등을 빈 시간에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고 수요자를 연계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공간들을 공유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 경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이제는 공간의 공유를 넘어 생활 전반에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경제의 확산이 규제의 벽에 부딪혀 고전 중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한쪽 편을 손만들어주는 규제 개선은 기존 체제와의 갈등과 충돌, 타협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존 체제와 갈등이 심하지 않은 부분, 오래된 법 규제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곳부터 먼저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의 사업자도 공유 경제와 같은 변화하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공유 경제가 확대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아이템을 공급자와

소비자가 거래·공유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즉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손쉽게 하는 매칭이 자동화된 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도 플랫폼 내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개인 간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플랫폼인 공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항이라는 플랫폼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됩니다. 수많은 항공사, 면세점, 여행사, 렌터카 업체 등이 공항에 모여 있고, 공항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항공사나 면세점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항공사가 공항에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따로 활주로를 만들 필요도 없지요. 플랫폼의 장점은 공통되는 요소를 공유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통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참여자의 급속한 확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참여자의 확대를 플랫폼의 이용자들 즉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플랫폼의 효용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고전적인 물리적 플랫폼은 현대에 들어 첨단 ICT 기술과 결합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참여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연결되고 유

지되면서 스스로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의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과 마치 웹이 연결되듯이 또 다른 플랫폼들과 기하급수적으로 연결이 확대되면서 자기 발전과 진화를 지속하면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 인프라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줌만 아니라 공유 경제를 위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매칭·연계·협업하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확장된 시스템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플랫폼이 스스로 자기 진화를 해 나간다면 합치라도, 공유 경제가 대중화를 넘어서서 실물 경제의 실질적인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에서 공유로' 일 반 시민의 인식의 전환, 즉 공유를 하면 소유할 때보다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꼭 새로운 생산을 통하지 않고도 기존의 유휴 자산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적 효과는 기존의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를 넘어서서 새로운 소비자·공급자의 거대한 시장과 다양한 새로운 수익사업의 가시화로 확대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필요 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의 소유에서 공유로, 머 나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청춘톡·톡

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전준우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너는 꿈이 뭐냐?" 어린 시절 주변 어른들께 자주 들었던 말이다. 어린 우리들은 소방관, 파일럿, 선생님, 연예인, 과학자 등의 꿈을 품었다. 꿈은 매일 같이 바뀔 만큼 아주 다양했다. 부모님, 주변 사람, 책, 언론 등의 영향을 받아 개개인마다 특색 있는 꿈을 꾸었다. 마음 속 결심들 하나 없이 단지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하며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달라졌다. 취업이라는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혔고, 가끔 좌절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다채롭던 우리의 꿈은 삶의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단순화되었다. 주위 친구들과

계 꿈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뭐" 라고들 대답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드문 것 같다. 대신 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는 현실적인 몇 가지 직업에 젊음을 건다.

나는 꿈이 자주 바뀌었다. 어릴 적 내가 해 준 계란 후라이를 맛있다며 연신 찾아대던 동생을 보면서 요리사를 꿈꾸기도 하였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소방관을,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예능 PD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실상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생활 기록부의 취미나 특기란에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즐겨하던 오락을 적을 뿐이었다. 나와 달리 친구들은 적어도 한 가지씩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 격지심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다. 그렇게 자존감 하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몇 개월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국립 현충원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는 현실적인 몇 가지 직업에 젊음을 건다.

나는 꿈이 자주 바뀌었다. 어릴 적 내가 해 준 계란 후라이를 맛있다며 연신 찾아대던 동생을 보면서 요리사를 꿈꾸기도 하였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소방관을,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예능 PD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실상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생활 기록부의 취미나 특기란에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즐겨하던 오락을 적을 뿐이었다. 나와 달리 친구들은 적어도 한 가지씩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 격지심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빠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미세하게 내 마음을 움직였던 작은 감정이 었다.

내가 그랬듯이, 잘하는 것도 없고 실력도 애매한 것 같아 초조해하고 답답해 하는 청춘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높고도 높은 취업의 벽과 이러저러한 압박감, 부담감에 초조해하다 보면 결국 깊은 우울 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란 수업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때 눈앞에 펼쳐진 기회들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 초조함에 당신 스스로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짜릿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감히 당신들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불씨, 곧 아무리 사소한 꿈이라도 크게 불타 오를 수 있기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신의 빛나는 청춘을 항상 응원한다.

社說

세월호 참사 5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은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은 해경에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그러나 해경은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책임 지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경정일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없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희생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책임자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날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은

폐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발표된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또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사무총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7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검찰수사 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초동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유가족들은 호소한다. "우리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같은 사고는 언제든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유가족들의 소박한 바람대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 만들어야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들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최근 전국 '열린 관광지' 네 곳과 일반 관광지 네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관광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과 노인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활동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모니터링 결과 순천만 습지공원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열린 관광지' 대부분은 일반 관광지보다 접근성도 휠체어 이동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 복지 안내판을 쓰레기통 등이 가로막고 있어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일반 관광지인 순천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주요 이동로가 자갈이 섞인 흙길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동이 가장 힘든 곳으로 꼽혔다. 음성 내 전통 혼례 체험장은 보조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표방하는 열린 관광지에조차 점자 안내 책자나 안내판이 없는 것은 행정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즉시 이를 개선하고 일반 관광지도 휠체어 이동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9년 4월 15일. 오거스타 내셔널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새겨졌다. 주인공은 타이거 우즈다. 전설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홀에 들어서는 우즈를 보며 모든 관객들은 기립한 채 '타이거'를 연호했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을 내지르며 여사의 현장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지난 1997년. 스물두 살의 겁 없는 골퍼 타이거 우즈는 마스터스 대회에서 2위와 무려 12타 차로 우승하면서 전설을 만들었다. 보수적인 오

거스타 내셔널 클럽에 선을 다했고 극적인 역전 승리를 일궈 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 차 없었는데, 드디어 흑인이 우승까지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로부터 22년, 일곱 차례 허리 수술을 거친 44세의 우즈가 마스터스 대회에 다시 쓰고 마침내 우승했다. 2위와 차이는 단 1타. 그만큼 피를 말리는 경쟁 끝에 이뤄 낸 승리였다. 하지만 올림은 22년 전보다 훨씬 컸다. 심각한 허리 부상과 섹스 스캔들의 오명을 끊임없는 인내와 도전으로 극복한 인간 승리였기 때문이다. 잦은 부상으로 골프를 포기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복귀 이후

타이거 우즈

뒤지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고 극적인 역전 승리를 일궈 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우즈는 많이 변했다. 오만한 쇼맨십으로 그린에서의 독무대를 즐겼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우즈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 15승, PGA 투어 81승째를 기록했다.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최다승(18승)에는 3승 차, 샘 스니드의 PGA 투어 최다승(82승)에는 1승 차로 다가갔다. 우즈가 이 기록을 넘어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골프 팬들은 우즈가 이 기록을 깨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에 나설 것을 응원한다.

*임동욱 서술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 화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문 화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52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3	문 화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문 화 부 220-0664	문 화 부 220-0693	인사부	220-0551
문 화 부 220-0642	문 화 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